

단체교섭속보

- | | |
|---|-------------------|
| 주 | 1. 정년연장, 신규채용 |
| 요 | 2. 고정OT 월 20시간 |
| 요 |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
| 구 |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7월 24일(금) / 제 01호

1차

-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3일(목) 10:00 ~ 10:2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 참석
 - 노측 : 박상만 교섭대표 외 16명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8명 □불참 : 없음
 - 사회 : 노사 윤번제로 진행되며 2차 교섭은 사측이 진행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2026년 단체교섭 돌입 !!

압도적인 단결력으로 반드시 승리로 쟁취하자 !

23일(목) 10시부터 평택공장 본관회의실에서 2026년 첫 단체교섭이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10일 산별전환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된 후 이루어진 첫 교섭이다. 이날 1차 교섭에서는 교섭위원 소개와 양측 교섭대표의 인사말로 이어졌으며, 주 1회 교섭 원칙과 사회 등을 논의하였다. 이제 교섭은 시작되었고 승리로 쟁취하는 것만이 남았다. 노동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확대 간부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만이 이번 2026년 교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양측 대표 인사말>

□ 김현욱 사측 교섭위원 : 에이치엘만도 총괄대표 김현욱입니다. 어제 평택사업장에서의 설비 작업중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때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금번 교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단체교섭이 상호존중과 성실한 대화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 박상만 노측 교섭대표 :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어제 만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노동안전실 실장 동지를 통해 보고받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산별 단일 노조로써 중대재해 발생 시 규정

및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일 14시 경 중대재해 관련 회의를 하러 금속 노조의 노안 실무자들이 먼저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도지부가 기업노조에서 올 해 조직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로 오게 되었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교섭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도도 AI 산업 전환시대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춰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단체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이현우 노측 교섭위원 : 어제 평택공장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평택지회에서 노사합동점검을 요구했는데 노사가 적극적으로 원인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목표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14년만에 2026년도 임단협 교섭에 다수 노조로서 교섭권을 갖고 오늘 이렇게 1차 교섭 출발선에 서게 된 점에 노동조합은 상당히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2026년 임단협을 최대한 노사분쟁없이 끝내고자 회사측에 대표이사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26년 임단협 요구안에는 임금성 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이 기대하고있는 정년 연장 및 신규채용 건, 더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괄대표께서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2026년 임단협에 임하는 만큼 전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통해 성실교섭,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성공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고된 참사가 일어났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22일(수) 평택공장에서 일어난 참사는 언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고였다.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인 아웃소싱으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미 몇 년 전에도 한차례 사고가 있었다. 몇 푼 안 되는 인건비를 줄이려 외주화를 강행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갖가지 안전 점검들이 결국 이 참사를 불러왔다.

현장은 벌써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돌고, 사측은 사실을 은폐·왜곡 하고 있다. 책임부터 회피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적정인력 유지의 회피부터 시작된 이 참사의 책임을 겹겹히 받아들이고, 비정상적인 경영 실태와 앞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몽원 회장이 전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弔